

# 나무 쓰러지고, 도로 침수... 경북 곳곳 피해

이철우, “예찰 활동을 강화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해 올 여름철 홍수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라” 지시

밤새 경북 지역에서 강풍을 동반한 비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3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밤 지역 내 호우·강풍 등의 피해 신고가 총 2건(나무 쓰러짐, 도로 침수) 접수됐다.

전날 오후 10시19분께 영주시 하방동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조치 후 시정에 인계했다.

앞선 오후 10시2분께는 칠곡군 동명면에서 나무가 쓰러져 119가 안전조치를 했다.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이날 오전 9시 10분 기준 석포 봉화 93mm, 상주 81mm, 문경 77.7mm, 봉화 60.1mm 등이다.

대구에서는 3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비 피해 관련 접수 건수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배수 관련 3건, 나무 쓰러짐 2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정제전선과 정제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비는 이날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대구와 경북남부 일부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경북 영덕·울진·영주·포항·경주·경북북동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은 30~80mm,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산지에는 100mm 이상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28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 거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재해예방 사업장을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에는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 박순창 경북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한천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돼 2021년 5월 사업이 시작됐으며 총사업비 350억원(국비 175억)으로 2026년 12월까지 시행된다.

이 사업은 하천 2.7km를 정비하고, 교량 4개 교체로 집중호우와 태풍 때 방여유고와 하폭을 늘여 인근의 26가구 70명, 건물 26동, 농경지 39ha 등을 보호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1536억원(국비 768억)을 투입해 21개 시군에 총 83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지사는 현장에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올 여름철 홍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 오늘부터 ‘풍수해 보험료’ 자부담 30%→45%

장마시작인데... 행안부 풍수해 보험심의회의서 보험료 조정 의결...

정부가 오는 1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 보험(풍수해 보험)의 자부담 보험료를 기존 최대 30%에서 45%로 인상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료의 자부담 비율이 오르는 것은 2021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풍수해 보험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입었을 때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각각 5조원, 8조원의 역대급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재난 지원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도 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본격 도입됐다.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자연재난이다. 가입 대상은 공동·단독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행안부가 관장하며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를 통해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그간 주택 기준으로 일반 가입자의 경우 국가(66.5%) 및 지방자치단체(13.5%) 등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가입자가 부담해왔다.

지난해 기준 가입 면적 80㎡ 주택의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4만3900원으로 이 중 정부 지원은 3만700원, 자부담은 1만3200원이었다. 보험금은 주택 전면 파손 등 피해 유형에 따라 최대 7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그러나 1일부터 이러한 일반 가입자 보험료의 정부 지원 비율을 55%로 인하, 자부담 비율을 45%로 올리기 시작했다.

자부담 비율은 2019년 12월 47.5%에서 2021년 1월 30%까지 내려 유지돼 왔는데, 3년 6개월 만에 다시 오르

는 것이다. 실제 올해 기준 주택 기준 일반 가입자 보험료는 연간 3만4900원으로, 지난해(4만3900원)보다 9000원 낮아졌다.

조정된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은 1만9100원, 자부담은 1만5800원이 된다.

정부는 대신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차상위 계층도 보험료의 21%를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없애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일각에선 집중호우 등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료 자부담 비율 인상이 자칫 풍수해 보험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주택 가입률은 33.4% 수준에 그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누구보다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 취약계층이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해 피해를 줄이기 바란다”며 “보험료 자체가 인화된 만큼 자부담 수준이 일반 가입자에게 부담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이만희, 청도군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 파장...

김호태 청도군의회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소속인 청도군의회 김호태(사진) 의장은 28일 후반기 의장 선출에 당협위원장이 이만희 국회의원의 개입을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탈당 입장문’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지역의 국회의원이 (청도군의회) 의장직에 특정 의원을 지목해 비정상적으로 원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만희 의원을 공격했다.

그는 “이만희 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장직 배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정상적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임

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군의원들 자율적인 선출에 맡겨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이·김규봉 군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4년간 한사람이 의장을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하자는 의견을 당원회의 차원에서 제시했으며, 당협은 이런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의장의 군의원 3명 동반 탈당 주장에 대해) 김규봉 군의원은 탈당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김규봉 군의원의 당 잔류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도군의원은 모두 7명으로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청도군의회는 1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조여은 기자

## 경북 인구 줄고 가구 증가, 농가 감소

농가인구 34만3742명 전년 대비 4561명 줄어

경북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노동·보건과 사회보장·환경·교육 및 문화 등 총 18개 분야 313개 항목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가 인구·산업·복지·교육·환경 등 도내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집 및 수록한 제63회 경북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경북통계연보는 도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한다. 김성용 기자



단체장 일정



류규하 중구청장은 1일 오전 대동지하도 등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 대비 현장점검’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1일 오전 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39회 영천시의회임시회개회식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2024 DAEGU CHIMAC FESTIVAL 대구치맥페스티벌 7.3/WED - 7.7/SUN 두류공원일원

#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대한민국 넘어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 대구치맥페스티벌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 도약

한여름 밤 대한민국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이 이제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축제로 위상을 드높인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올해를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선다.

2013년 대구에서 시작한 치맥페스티벌은 12회를 거듭하는 동안 축제 규모와 방문객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분석을 통한 축제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

치맥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200여 개 축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2020년부터 5년 연속 뽑혔다.

문체부의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축제 재방문 의향과 타인 추천 의향 1위로 평가됐다.

치맥페스티벌이 대한민국 외식 문화의 대명사인 치맥을 활용한 축제 콘텐츠로 성공적인 개최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치맥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로 도약이 우선이다.

글로벌 축제로 지정이 되면 전문가 평가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국비 지원과 함께 글로벌 홍보와 교류도 지원받아, K-컬처 확산으로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는 K-푸드의 하나인 치맥을 활용한 축제로 글로벌 관광객을 모으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차근차근 글로벌화를 염두에 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및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연계해 국내외 외국인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홍콩과 일본 등에서 500팀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사전에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쾌적한 공간에서 치맥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존'을 운영해 5일간 1천20명이 유료로 참가해 1020만 원의 매출을 거뒀다.

올해도 메인 무대가 있는 2.28 자유광장에 '글로벌 예약 식음존'을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이 치맥페스티벌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 도전

올해 치맥페스티벌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4 문화관광축제 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글로벌 여행상품까지 내놨다.

현재 아시아권 대형 여행 플랫폼인 '클룩(Klook)'과 연계해 글로벌 관광객 대상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아시아 및 중화권에서 인기 있는 이월드(축제장 맞은편)와 협업한 여행 상품으로,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 이용권과 치킨+맥주+특별소스 패키지, 이월드 할인권 등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5월에는 '2024 Korea Travel Festa in

상하이'에 참가해 중국 여행업계와 한국 관광콘텐츠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교촌치킨과 함께 현지인을 대상으로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구현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는 9월에는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 축제' 대구시 홍보부스에 참가해 내년도 글로벌 관광객 유치전에 뛰어든다.

치맥페스티벌 곳곳에 사용되는 캐릭터와 심볼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로 리뉴얼해 선보여 직관적으로 축제를 알린다.

축제 기간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기념품도 제작해 언제나 치맥페스티벌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대구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K-푸드와 대한민국 외식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치맥을 활용해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은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문체부의 '국가대표 글로벌 축제'에 선정된다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와 치맥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홍보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진화를 거듭해온 치맥페스티벌이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공고

피상속인 : 양 신세호(881124-1167811) 사망일 : 2024. 2. 15  
계후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대동)

피상속인 양 신세호의 법정상속인 신달식과 법정상속포기인 외 1인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대구가정법원 사건 2024년단463로 신청하여 2024년 3월 15일자로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을 청산하고자 하오니 위 망인의 채권자와 유증받은자는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상속재산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

한정상속인

1.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2. 김성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덕로 130, 105동 808호(가음동, 가음주공아파트)
3.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대동)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성양  
채권신고장소 :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57번길 8의 2

###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6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정한 슬로건입니다.



# 세계인이 함께하는 大 축제로 힘차게 도약

대구치맥페스티벌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축제 되도록 행정력 총동원...



'It's Summer! Let's Chimacl!' 다시 뜨거운 여름 축제로 돌아온 '2024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남녀노소 누구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즐길 수 있는 콘셉트로 가득 채워진다. 더욱 다채로워진 초청 뮤지션 라인업부터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만의 한정 소스, 귀갓길을 돕는 대구로 택시까지, 미리 알고 축제장을 방문한다면 만족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올해 치맥페스티벌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 초청이다.

### 치맥페스티벌 제대로 즐기는 법

2:28 자유광장에 조성되는 메인 무대 '트로피컬 치맥클럽'과 2:28 기념탑 주차장 '하와이안 아이스팸', 코오롱 야외음악당 '치맥 섹셋가든', 이 세 곳의 축제장에는 콘셉트에 맞는 인기 가수

공연이 매일 밤 10시에 각각 펼쳐진다. 하루는 친구, 하루는 가족, 하루는 연인과 함께 방문해 매일 색다른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트로피컬 치맥클럽'은 메인 무대답게 힙합, 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트렌디한 뮤지션이 매일 참가해 치맥페스티벌 콘서트인 '치맥콘(Chimac-Con)'을 펼친다.

축제 첫 날인 3일 박명수와 지코가 방문해 흥겨운 디제잉과 힙합 무대를 선사한다. 이튿날에는 국내 밴드씬을 대표하는 4인조 록 밴드 데이브레이크와 래퍼 창모가, 7월 5일(목)엔 SNS 밈 열풍을 타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다나카와 닛물캐쉬&158, 이짜나언짜나가 분위기를 달군다.

6일엔 자신만의 색깔로 코어 팬층을 넓혀가는 지울팍과 쇼미더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린 래퍼 우디 고차일드가 무대를 채운다. 7일 메인 무대 피날레를 장식할 뮤지션은 미스트롯으로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집수환 송가인과 차세대 트로트스타 류원정이다. '하와이안 아이스팸'에서 펼쳐지는 공연 또한 누군가에게는 '치맥콘급 무대'가 될 수 있다. 이곳에서는 향수를 자극하는 8090 뮤지션이 참가해 흥을 돋운다.

3일엔 '흐린 기억 속의 그대'로 유명한 원조 힙합 가수 현진영이, 4일 최고의 춤꾼 박남정이 무대에 오른다.

5일 시원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톤다리 디바 김현정이, 6일엔 '달빛 참가에서'를 부른 2인조 도시아이들이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날에는 감성을 자극하는 보컬로 마음

을 울리는 제이세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 한여름 밤 감성 올려줘

'치맥 섹셋가든'은 한여름 밤 감성을 가득 눌러주는 발라드 공연으로 참가자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3일 밴드 다섯손가락의 리더이자 보컬 이두현의 기타연주와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4일 자신만의 음색으로 커버곡 콘텐츠를 올려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이자 싱어송라이터 예민나다가, 5일 90년대를 풍미한 록 발라드의 대표주자 K2 김성만이 무대에 오른다.

6일 밴드 무어의 보컬이자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 참가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하동연, 마지막 날엔 1985년 '바다에 누워'로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높은음자리가 공연을 펼쳐 깊어가는 여름밤을 수놓는다.

해택과 함께 좌석까지 늘린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올해도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는 지난해 960석에서 올해 1500석으로 확대했다.

지난 20일 예매 시작 첫날부터 3일과 6일의 좌석이 매진돼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 예매 시 테이블(4인 기준)당 맥주 6캔과 아이스버킷, 꼬찌머리디 4개, 대구로 1만 원 할인권이 제공된다.

프리미엄 치맥 라운지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첫선을 보이는 치맥페스티벌만의 한정 특별 소스인 '맵치크 소스(매콤 치콜레 크림치즈 소스)'가 제공된다.

맥주 브랜드 카스의 이색 캠페인 '치카치카와

협업해 만든 대구의 Hot(더워·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소스다. 치약과 칫솔을 콘셉트로 소스 튜브와 소스 솔을 만들어 맛과 함께 재미를 담았다. 맵치크 소스를 시작으로 매년 치맥페스티벌만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선보인다.

치맥페스티벌 시작 전 진행되는 사전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현장 행사도 마련됐다.

사전 행사로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는 '대구치맥페 고사'가 진행된다.

사진 속 치킨 브랜드와 메뉴명을 맞추는 '치킨 추리영역'과 대구·치맥·여름으로 2행시를 짓는 '치킨 작문 센스영역'을 통해 총 35명에게 치킨을 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치맥페스티벌 인스타그램(daegu\_chimac\_festiv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한 몫

축제 현장에서는 9·9조를 정확하게 맞추는 '9·9조를 잡아라'와 축제의 상징색(빨강·노랑)으로 의상 아이템을 다수 장착한 참가자에게 선물을 주는 '베스트 드레서' 선정도 진행된다.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겨냥해 새롭게 내놓은 신규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도 빼놓을 수 없다.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리뉴얼된 신규 캐릭터와 심벌을 사용해 티셔츠 4종을 내놓는다.

머그컵 2종, 아크릴 키링 2종, 스티커 2종 등 오직 치맥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는 굿즈를 선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와 연계한 서

비스도 강화한다.

치맥 프리미엄 라운지를 예약한 관광객에게는 1만 원 할인 쿠폰, 일반 관광객에게는 5000원 할인 쿠폰을 대구로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한다.

대구로 택시와 연계해 축제장에서 나와 기다릴 필요 없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택시 승강장도 신설해 관광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축제 방문객들에게 축제 기간 동안 대구지역 곳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및 식음, 관광 연계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국 곳곳에서 찾아오는 축제 참가자들이 더욱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KTX 연계 상품도 내놨다.

축제 기간 일부 열차를 특별 편성해 주중 50%, 주말 30% 할인을 제공하고, 치맥페스티벌 1만 원 쿠폰까지 증정한다.

승차권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코레일톡의 경우 앱 하단 '여행' 버튼을 눌러 '경북 권 지역 여행 상품'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올해 치맥페스티벌도 축제장을 방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대구로, KTX 할인 및 쿠폰 증정 등으로 치맥페스티벌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농지

지

연

권

농지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연

금이 있습니다

권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민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실 자국이 잔뜩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차관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당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r**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연금·농지권

"나부터 청렴하GO! 우리 함께 청렴하GO! 모두 청렴하GO!"

**kr** 한국농어촌공사 **fb** 선주지사

# 민선 8기 2년 대구 대혁신 “잘했다” 60% 돌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5대 미래 신산업 육성, 도심 군부대 동을 통해 미래 50년 먹거리 확보에 주력한다.

혁신으로 대구를 변화시키고, 여기에 대구경북행정통합을

홍준표, 지난 2년간 오직 250만 대구시민만 보고 대구혁신 100+1을 통해 대구굴기 핵심틀 완성...  
 홍준표 소통·공감 이야기 문경서 대박행진 터뜨려 대구 경북 통합해야 살고 안되면 20~30년 후 예는 경북 북부 소도시 소멸 빠있는 충고의 말 던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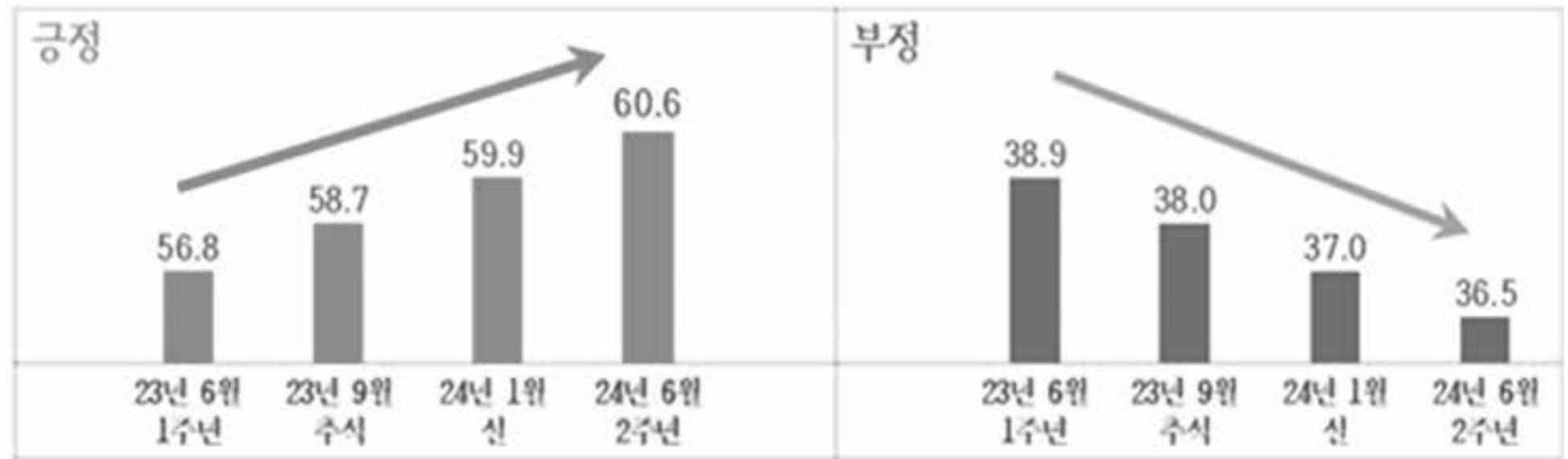
민선 8기 2년 대구 대혁신 “잘했다”가 60% 돌파했다. 이 사실은 대구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12~18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0.6%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년간 오로지 250만 대구시민만 바라보며 대구혁신 100+1을 통해 대구굴기의 핵심틀을 마침내 완성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께서 더 큰 대구와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담대한 도전에 굳건한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뿐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소통·공감 토크도 상승기다.

■대구 대혁신 잘했다 60% 돌파  
 조사는 대구미래 50년을 위해 폭넓은 시민 의견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해 실시됐다. 여론조사 결과 시정운영 전반은 지난해 민선 8기 1주년 조사 때보다 긍정비율이 3.8%p나 높은 60.6%이며다. 최근 4회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긍정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부정비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지난 민선 7기 시절 총 6차례 여론조사에서 시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평균 42.3%에 그쳤다.

하지만 민선 8기 출범 후 기득권 카르텔 타파와 쇠락한 대구 재건을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 대구가 질적으로 확실히 달라진 점에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8기 핵심정책 선호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통합 무휴교통 지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혁신적 정책을 가장 선호했다. 어르신 통합 무휴교통 지원은 지난해 7월 도입돼 버스과도 시설도 전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정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의 강한 추진력으로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의 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것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타파와 대구시민의 쇼핑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천수변공원화 사업과 대구대공원 확충 등 획기적인 시민여가공간 조성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신천은 올해 말까지 신천 도심구간에 5000 그루 나무를 더 식재해 시민이 머물고 싶은 푸른숲으로 변모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대보교 인근에 프라포즈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게 되면 신천은 전국적으로 핫한 명품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K-트로트 페스티벌, 대구마라톤 등 시민들에게 행복감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분야 역시 선호했다. 지난 5월 개최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는 한방문화축제, 파워풀 대구페스티벌, 동성로 축제 등 봄·가을 축제를 대동합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대비 역외관객 비중이 22.6%, 축제연계 관광 비율이 22.5% 증가했다. 만족도 또한 71.7점에서 78.1점으로 상승했다. 대구마라톤은 올해 4월 개최돼 역대 최대 인원인 28,000여 명이 이번 대회를 즐겼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급, 세계육상연맹 국제공인코스, 역대급 참가인원 등 명실상부 세계 최고 대회로 격상됐다. 내년 대회는 참가자들의 컨디션, 날씨 등을 고려해 2025년 2월 23일 추진한다. 민선 8기 핵심정책 선호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들은 대부분 시민중심체감형 정책으로 손꼽혔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는 현장에서 시민들은 많은 지지와 뜨거운 호응을 보내줬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8일 문경 문희아트홀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는 주제의 강연했다. (사진:대구시 제공)



통합이전 등 장기간 소요되는 대형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본격 착공되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 시민들의 선호도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은 전국 최초로 민·군 공항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헌정 사상 첫 기부대양어 특별법이 제정됐다. 12월에는 대구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 상반기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공공·금융기관 업무협약을 했다. 하반기는 사업성 보장 등을 위해 특별법 일부 개정과 SPC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간 기피시설로 여겨던 도심 속 군부대도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 군위, 영천, 상주, 칠곡, 의성에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향후 이전지 선정, 설계·공사 등 관련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해 2030년까지 국군부대 4개소(5개 부대)를 이전시켜 전국 최초 밀리터리타운을 조성한다. 시는 아직 체감도가 낮은 가시적 정책들에 대해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단계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을 쏟는다. 미래 청사진에 대한 사업 효과도 시의적절하게 전략적으로 홍보한다.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은 미래 신산업 육성 및 대구모 투자유치, TK신공항 건설이 대구미래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이 같은 중장기 정책사업은 직접적인 성과를 당장 체감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경제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돼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대구시는 민선 8기에 들어 활력을 잃어간 대구산업에 ABB(AI, 블록체인, 빅데이터)·반도체·로봇·UAM·헬스케어를 5대 주력산업으로 재편하는 산업혁신을 단행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원스톱 기업지원으로 출범 단 2년 만에 지난 10년간 유치 총액의 2배에 달하는 8조 5,532억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수성알파시티', '대구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지구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미래신산업 활성화 및 대구모 투자유치 활

앞으로 바라는 미래정책 3위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선정됐다. 이것은 대구·경북이 2026년 7월 통합을 목표로 모든 시장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다. 지난 5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통합에 합의했다. 불과 한 달 뒤인 지난달 17일 대구시는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전격 신설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균형발전 전략수립, 경제·산업 분야별 특례 발굴 등 통합에 필요한 면밀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혁신 100+1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 중심축으로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구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1,06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온라인을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대구·경북 통합 안하면 20~30년 후 소도시 소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8일 문경 문희아트홀에서 '선진대국 시대로 가자'는 주제의 강연했다. 홍시장은 28일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20~30년 후 경북 북부의 소도시들이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강은 최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의 특강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홍시장이 경북 공무원들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소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아는 분이"라며, "모든 분야를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자리든 최고의 책임자이며, 사람들의 마음도 잘 읽을 줄 아는 분이"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환영했다. 홍시장은 "문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문경새재인데, 국회의원 재직 당시 매년 1000여 명 정도 단합대회를 문경새재에서 10년 동안 했던 추억이 남아 있어 문경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면서 문경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홍시장은 "민선 8기 2년 동안 시정 전 분야에 걸쳐 100가지

더해 대구혁신 100+1의 틀을 완성했다"며 '대구혁신 100+1'에 대해 소개했다. 대구와 문경의 과거 산업 쇠퇴와 몰락을 비교하며 대구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5대 신산업으로 주력 산업을 개편했듯이, 문경도 관광산업의 몰락을 대체할 신산업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문경시장의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이며,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하늘길이 열려야 되며, 신공항이 완성되면 문경의 관광사업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청두시의 사례를 들면서 신공항이 개항되면 첨단산업 유치와 청년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구경북발전의 핵심적인 축이 신공항인 만큼 SPC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경북 북부지역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신공항을 이용한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경북 북부지역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성공적인 통합이 이뤄질 경우 대구경북은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 우뚝 서게 되고,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균형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 40% 발탁인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30대 여성 공무원의 부구청장 발탁승진과 청년정책의 본질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에 탄성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홍시장은 "경북 북부지역의 소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은 경북 북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경시 공무원들도 더 넓은 시각을 갖고 대구경북이 중심이 돼, 대한민국이 선진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강이 종료된 후 경북 문경시청 내부 게시판에는 '홍준표 시장님 꿀잼, 말씀도 시원시원하고, 근래 명사 특강 중 가장 좋았다. '코카콜라 한잔하면서 퇴근해야겠다', '속도 시원하고 꿀잼 인정입니다' 등 현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대구시는 대구는 물론 경북의 지자체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특강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조여은 기자 김동수 기자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경상북도 경주' 선정



문화역사관광도시 경주, 자체 브랜드가 가진 강점 뛰어남  
 경북도-경주시 APEC 개최도시 최종선정에 따른 후속절차 준비 착수  
 이철우 지사, "1,500년전 세계 4대도시 경주, 다시 세계에 알릴 기회로 만들겠다"

## 2025 APEC 경주... 경북 경제 9720억 생산 유발 효과

###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주시 최종 선정

경주시가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2025 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2005년 부산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국제외교 행사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는 27일 외교부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지난 20일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건의된 경북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했다.

경주와 함께 유치 경쟁에 나섰으나 개최도시로 선정되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을 분산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 올해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연중 200회 이상의 각급 APEC 회의(정상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5차례 고위관리회의(SOM), 산하 협의체 회의 등)를 개최한다.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1993년부터는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태평양 연안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총생

산(GDP)의 약 62.2%, 교역량의 50.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협력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더불어 APEC 창설을 주도했다.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인 1991년 이미 서울 각료회의를 열어 헌장적인 '서울선언'을 마련했다.

2005년 제13차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며 또 하나의 대역사를 만든 바 있다.

2025년 제32차 정상회의가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정체성과 대한민국 경제기적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한다.

혁신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역균형발전 등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전국적으로 1조 8000억원을 훌쩍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경제에만 972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65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내고 7908명의 취업창출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는 지방시대를 앞당길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2021년 7월부터 일찌감치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에 나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포용적 성장과 균형발전 실현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지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대대적인 유치 세일즈 활동을 펼쳐왔다.

유치 선언 이후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의 유치 열기는 그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다.

천년고도 문화유산을 지켜온 시민의 자긍심은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로 발현, 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박공룡)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에서 500여 차례가 넘는 자발적인 지지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시작된 100만인 서명운동은 시작하지 불과 85일만에 146만 3874명의 서명을 달성하면서 시도민과 출향인들이 경주 유치 열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시도민의 유치 의지에 대응해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개최도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친다.

주요 행사 연계, 유치희망 포럼, 슈퍼콘서트 등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대내외 표명하고 범 시도민의 유치 희망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경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도내 지자체와 의회를 일일이 찾아 유치 협조를 구하고, 서울과 경기도 의회 등 우호도시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이끌어 냈다.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윤세영, 신평)에서도 유치도시 홍보를 위해 수도권과 여러 정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 유치 세일즈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정치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경주 유치 건의를 하고,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국회의원 58명의 경북 경주 APEC 개최도시 지지 서명을 받아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로 개최 결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격은 물론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의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보고 경북도와 경주시가 본격 준비에 착수한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회의장 및 숙박시설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APEC 준비지원단 구성, 지원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체제에 돌입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경북연구원·경북문화관광공사·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마이스(MICE) 산업 분야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외 홍보마케팅에도 적극 나선다.

대구·경북권 경제계와 기업들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구상공회의소,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KOTRA 대구경북지원단,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경북수출기업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대구·경북의 특화산업 우수성을 알리고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제 경북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확실히 마련했다. 이 놀라운 성과는 25만 경주시민과 260만 경북도민, 그리고 경주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 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가치 실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회의 준비위원회에 시민을 대표해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정상회의 개최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개최도시 선정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풍요로움, 그리고 시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 낸 쾌거다. 1500년전 세계 4대 도시였던 경주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든 역량을 함께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동구청,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응급처치 교육 실시

동구청은 지난 4일부터 28일까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총 7회에 걸쳐 응급처치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동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동구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안전 모니터 봉사단과 안전보안관 등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119신고 요령, 환자 호흡확인 방법 등 실제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험 교육으로 구성됐다. **조미경 기자**



# 대구경제를 이끌어가는 작은 거인들을 찾습니다

## '2024년도 대구시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 공개 모집

대구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 온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에 발굴·시상하기 위해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후보기업을 새달 1일부터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구시 중소기업대상은 지난 1996년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174개 업체를 시상한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대구시에 본사와 사업장(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두고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체로, 신기술 개발과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이 두드러진 기업을 후보 기업으로 한다. 선정 방법은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재무평가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총 6개 업체(대상 1개, 최우수상 2개, 우수상 3개)를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024 대구 중소기업인대회' 행사시 진행된다. 아울러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대구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금리(0.3%) 추가 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0.2%) 추가 우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우선지원과 3년간 대구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의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의 경제 부서, 경제단체(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등), 기업지원기관(대구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서류 서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관(053-803-3393)으로 문의하거나, 대구시 및 추천기관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공헌해 온 지역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기 위한 2024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공모에 많은 신청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군위군, 군위BC(U-16) 야구단 창단식

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위 BC(U-16) 야구단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진열 군수, 박수현 군의회 의장, 이우선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 권오기 대구시 북구 야구소프트볼협회장, 선수단 및 학부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단식은 내빈소개, 군위BC 소개, 축사 및 격려사, 유니폼 발표 및 코칭(선수) 소개, 창단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우선 군위 베이스볼클럽 단장이자 군위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최초의 엘리트 야구단인 군위 베이스볼클럽 창단이 있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군위군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창단식에서 "야구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 국민스포츠 중 하나인 야구 종목의 유소년 야구단이 창단되면서 아이들이야

구의 기초를 탄탄히 배워 꿈을 키워나갈 발판이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느 명문 학교 야구부에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시설인 삼국유사 야구장 아래 유능한 지도자들과 함께한다면 군위를 빛내는 것은 물론 최고의 선수로 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군위 베이스볼클럽과 더불어 군위 야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위 BC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에 부합한 유소년 야구팀으로 삼성라이온즈 출신인 이우선 단장, 오정복 감독, 정인욱 코치의 지도 아래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위 삼국유사 야구장 2면과 실내훈련장,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작년 말에는 야간 조명시설까지 보강하여 대구 경북권 최고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 달성군의회 개원 33년만에 첫 여성 의장 선출

의장 김은영 군의원, 부의장 김보경 군의원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 원구성 마침



달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고 3개의 상임위원회로 제9대 후반기 달성군의회 원구성을 마쳤다. 이날 군의장선거에서 국민의 힘 김은영(사진) 군의원이 제9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로서 달성군의회 개원 33년만에 첫 여성의

장이 탄생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의장단 투표에서 제직의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김은영 군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김 군의원은 재선의원으로 당정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은영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의장,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듣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이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제9대 후반기 의회가 더욱 발전하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부의장 선거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보경

군의원이 선출됐다. 김보경 부의장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달성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례적 인물이다. 그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여러 조례안을 제정해 왔다. 김보경 부의장은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의정에 반영하는 달성군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달성군의회는 1991년 개원 이래 첫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전문 분야별로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행정의 집행과정을 더욱 철저히 견제하며, 군민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조례 마련과 민원 해결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조여은 기자**

## 중구청, 인구의 날 기념행사

7월 11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인구의 날 기념, 오은영 박사 초청 특강

중구청은 새달 11일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인구의 날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87년 7월 11일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 행사는 구립 어린이합창단의 식전 공연, 기념사와 축사,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중구 관내(예비) 부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세계 인구의 날, 우리의 미래'란 주제로 오은영 박사의 명사특강이 진행된다. 인구의 날 행사 참여는 무료로 진행되며, 중구청 누리집 및 티켓링크를 통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인구의 날을 맞이해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중구청, 2024년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

희로애락, 인생을 담은 수제화

중구청은 참신한 수제화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제화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희로애락, 인생을 담은 수제화'를 주제로 우수한 수제화 디자인을 발굴해 구민이 함께 공감하고 향촌동 수제화 골목의 위상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참가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누리집 고

시·공고를 참고해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전자우편(hyun36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출품작을 모아 1차 디자인 심사를 거쳐 향촌동 수제화 골목 장인들이 시제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작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설문조사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대상 300만원(1명) △최우수상 150만원(1명) △우수상 100만원(2명), △장려상 50만원(5명)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9월에 열리는 '제11회 빨간구두

이야기' 축제와 향촌수제화센터에서 시상 전시될 예정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은 장인의 숙련된 기술과 공모전 참가자들의 독창적인 감성이 어우러져 우수한 수제화 디자인을 발굴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라며 "향촌동 수제화 골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동구청, 방촌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본격 가동

공기순환용팬 등 폭염저감시설 갖춰 시원한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조성

시장 내 130m 구간에 설치됐으며, 예산은 2억 원이 투입됐다. 쿨링포그 시스템은 빗방울의 약 1000만분의 1 정도 크기로 정수된 물을 분사하는 '물안개 분사 시스템'으로, 분사된 물이 더운 공기와 만나 주위 온도를 3~5도 낮춘다. 물 입자가 작아 옷에

달아도 바로 증발한다. 동구는 지난해 동서시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조성했으며, 올해 방촌시장과 함께 하반기에는 목련시장에도 아케이드 완공 후 쿨링포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쿨링포그 설치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전통시장 장보기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수성구,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수성구는 지난 28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해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찰청에서 교통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문영준 경사를 강사로 초빙해 실제 경험을 반영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 영상과 음주운전 적법처분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함께 살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라며 "대내외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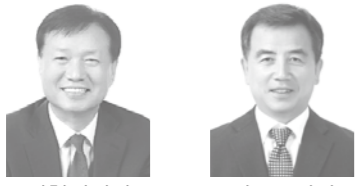
## 군위군, 부패예방 위한 '청렴 알리미' 운영

부패취약분야 대상 민원인에게 문자 발송 서비스

군위군은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7일 민원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알리미' 문자를 전송했다고 밝혔다. '청렴 알리미'는 인·허가 및 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등 부패취약분야의 행정 업무처리 경험에 있는 민원인에게 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을 수 있는 부조리를 파악하기 위해 발송되는

문자 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직자가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민원인에게 부패신고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청렴 알리미를 통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 알리미는 2024년 1월~4월 부패취약분야 행정업무 처리 경험에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송되었다. **박재성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영천시의회  
김종욱 의원



성주군의회  
김종식 의원

영천시의회·성주군의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영천시의회 김종욱 의원, 성주군의회 김종식의원이 2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강인한 생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한 지역의 지방의정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상이다.

김종욱 의원은 제9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영천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했고, 5분 자유발언(차산관광지)과 영천시 축사악취방지 대책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등 영천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김종욱 의원은 "영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지난 시간이 이렇게 좋은 평가와 상으로 보답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뿐이다"며 "제9대 영천시의회 후반기에는 현재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영천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종식 의원은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모범적 현장 중심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 산업 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지역발전과 농민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봉화군-수원특례시  
우호결연 협약 체결

봉화군과 수원특례시가 지난 28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봉화군의회 김상희 의장을 비롯한 봉화군 실과소장 등 40명과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 수원시의회 김기정 의장 등 수원시 측 30명이 참석해 우호결연을 축하했다.

봉화군과 수원시는 2005년 9월 10일 교류를 시작으로 상호 축제 방문을 통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우호결연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과 협력관계 확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전성기 기자

“울릉군, 민선 8기 후반기 행정기구 개편 단행”

안전분야 강화와 핵심사업의  
실행력 및 전문성 강화에 주력

울릉군이 민선 8기 후반기의 미래비전과 정책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둔 조직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27일 제279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외 1건이 의결됐다.

이에 군의 조직은 기존 3실 1단 8과(47팀 196명)

에서 2실 1단 9과(48팀 206명) 체제로 전환된다. 경제투자유치실은 경제교통정책실로 명칭 변경되며, 항공시대를 대비한 경제·투자·교통·에너지 등 생활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총괄 진행해 나가게 된다.

건설과는 안전관리 기능을 흡수해 안전건설단으로 명칭 변경 및 직급 상향되며, 문화관광체육실은 관광과 문화·체육으로 업무를 나눴다.

관광 분야에 산림업무를 흡수한 관광산림과를 신설하여 친환경 산림생태 관광섬을 조성하게 되

며,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 분야에 여성·아동·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비롯한 군민의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인문교양) 장려 등 주민의 행복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단위 공공건축과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속도감 배가를 위해 도시건축과를 신설한다. 미래전략추진단은 미래전략과로 명칭 변경되며, 군의 정책사업 청사진을 그리는 한편, 저출산 대응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본청의 기능과 역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여 인력은 외청의 업무 기능을 조

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여 조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다음 달 초에 공포·시행될 계획으로, 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준비 중에 있다.

남한권 군수는 "민선 8기 들어 조직개편이 2번째이다. 후반기 핵심사업의 완성을 위해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새울릉 실현을 위한 역할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새로운 울릉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천시 무역사절단, 국내는 좁다! 동남아 시장 정조준!!



수출상담회,  
총 16건 697만 달러 계약 성사

영천시 동남아 무역사절단이 지난 26일 수출상담회에서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의 추가계약

이 이루어져, 총 82건 상담, 16건 계약체결, 697만 달러(한화 약 96억)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투게바이오(비료제조업), ㈜대이엘즈(건강식품제조업), ㈜전연식품(식품제조업), ㈜삼막(과실 가공처리업), ㈜이비제

(인삼음료제조업), ㈜시루와방아(떡류제조업) 등 10여 개 업체의 생산품이 베트남 현지 40여 명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추가계약(계약추진액 750만 달러)이 성사됨으로써 영천시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난 27일 무역사절단은 하노이를 거

점으로 1992년에 설립해 1만여 개 소수주주 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회장 홍선)와 양 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해 김용문 시의원 등이 참석해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지역 기업 우수 제품 및 우수 농식품 글로벌 컨설팅과 공동 마케팅, 인적자원 교류를 위한 상호 간 교류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는 하노이를 거점으로 1992년에 설립됐으며 600여 개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30여 년간 한국과 베트남 경제 협력과 무역 증대 활동을 강화하며 베트남 대정부 활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뛰어난 제품들을 동남아에 널리 알리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향후 영천시는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시민과의 소통행정 '시민행복민원실' 운영

박남서 영주시장, 1일 민원실장  
매월 민원 현장 청취

영주시는 지난 28일 가흥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4명과 함께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시민행복민원실'을 운영했다.

시민행복민원실이란 시장이 1일 민원실장이 되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지역의 현안·건의 사항을 듣고 공감하며 밀착 상담하는 것으로 현장 소통을 통해 심도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흥1동을 찾은 박남서 영주시장은 격의 없는 소통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했다.

이번 시민행복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주



민들의 고충은 주차 문제였다. 영주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가흥1동은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차 문제는 더욱 가중됐다.

이에 박남서 시장은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또한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늘 쉼터 조성 △메타세콰이어 길 자전거 도로 지정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불법 노상 적치물 게도 방한 등 걱정 없고 행복한 가흥1동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제시됐다.

첫 번째 행복민원실을 주재한 박남서 시장은 "시민행복민원실 운영을 통해 생생한 현장을 목소리를 듣고 주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발로 뛰는 소통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이날 소통을 시작으로 매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시민행복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장소통 런투유(Run to you)', '365 열린시장실' 등 현장 소통을 통해 얻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모델개발 박차

의성군은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스마트 영농관리 모델과 의성 마늘 기계화 재배 모델 설계를 위한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시찰·장비 스마트화 세부실행 모델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의성군의 핵심 농산물인 마늘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의 첫걸음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농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연구용역은 한지형 마늘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영농관리 모델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자동관수 도입방안 및 모델 설계 △기상재해예찰 운영 모델 설계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생육관리 및 병해충 모니터링 체계 정립 △자율주행 농기계를 포함한 마늘 기계화 재배 모델 정립 연구가 진행된다. 박재성 기자

고령군-K-water,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

총사업비 80억원에서 178%  
증가한 142억원 추가 확보

고령군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낙동강유역본부는 지난 28일 고령군청에서 노후 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한 '고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약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환경부 정책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여 시·군의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고령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총사업비 80억원)'의 후속 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서 178% 증가한 1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2030년까지 6년간 고령군 관내 노후 상수관로 약 32km를 교체하고, 수도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사업구역의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활한 용수공급 및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도물 생산비용 절감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영백 기자



클린시티 안동,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전면 개편

기존 2개 권역→4개 권역 세분화  
경쟁입찰 통해 연간 5억 원 절감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동지역 및 도청신도시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민선 8기 권기창 시장의 주요 정책인 '클린시티 안동' 조성을 위한 역점시책으로 올해 초부터 준비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생활폐기물 수거는 민간위탁 용역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2개 권역으로 수거해왔으나,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권역별 수거구역이 넓어 원활한 수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 2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권역별 수거구역이 축소되며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시가지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을 2대에서 4대로 증차해 장롱, 침대, 식탁 등 부피가 큰 폐기물의 경우, 스티커 구매부착 후 수거업체에 연락하면 집 앞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이 배출장소까지 폐기물을 이동해야 하는 수고도 덜게 된다.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와 함께, 업체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함으로써 수거서비스 향상으로 클린시티 안동 구현에 한층더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은 우리 시민 한층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민 여러분도 배출요일(일요일·금요일, 토요일 배출금지)과 배출시간(18:00~24:00)을 잘 지켜 클린시티 안동 조성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송명주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언제나 항상 맑음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